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하고...

고 정 인 · 벨라벳다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지난 11월 3일 서울대교구 가톨릭호스피스협의회 주최로 전라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는 천주의 성요한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5년전 호주의 호스피스 기

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말기환자들의 해맑은 모습과 주변의 아름다운 조경, 시설, 기타 모든 시스템이 병원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고, 호주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옮겨오면 좋겠다 생각하며 부러움을 가졌었기에 이번 기관 방문은 무척이나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8시 30분 서울을 출발한 고속버스 안에서 차창 밖으로 비춰진 추수가 끝난 들녘과 노란 은행잎, 이곳저곳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각양각색의 단풍잎은 지난주에 만났던 병상에서 고통중인 환자들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였고, 그동안 농사일로 바쁘게만 지냈던 나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인간의 생노병사를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오후 1시경 도착하여 간단히 점심식사를 마치고 들어간 천주의 성요한 병원은 하늘나라로 이사 가실 분들을 위한 쉼터라서 그런지 병원이라기보다 가정집 같이 아늑하고 푸근한 느낌이 들었다. 해맑은 모습으로 저희들을 환영해 주신 호스피스과장님, 가정간호 수간호사님의 안내를 받아 천주의 성요한병원의 이념과 왜 호스피스를 하게 되었으며,

현재 성요한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천주의성요한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이 곳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천주의 성요한 사명인 환대란 의미의 호스피텔리터를 실천한다는 목표아래 아일랜드 천주의 성요한 수도회의 도움으로 1960년 수사님들로 구성된 이동진료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 본관 3층을 호스피스 병동으로 운영하며 22개의 병상과 기도실인 소성당, 샤워실, 보호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과 쉼터, 주방, 그리고 호스피스 홍보를 위한 교육실과 정원, 입원 기간동안 가족의 기념일, 생일파티, 영세 등 가족들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조용한 휴식 공간을 갖추고 있어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환자들이 편안하게 샤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침상목욕기와 샴푸기가 구비되어 있었고, 사적인 시간이나 휴식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병원의 복도로 한정되어 있는 보통의 병원들과는 달리 환자의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장소가 세 곳이 마련되어 있었다. 환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준비된 산책로는 국화꽃으로 장식이 되어있었는데 봄에는 영산홍이 화사하게 피어 산책을 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이용이 많다고 한다. 산책로 이외에도 병실이나 병원의 복도에 장식되어 있는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액자와 인테리어를 보며 이 곳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밝은 분위기에서 기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병원의 시설 외에 천주의 성요한 병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했던 점은 실질적인 봉사차원에서 가정호스피스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가정호스피스 방문간호는 완치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가정간호사가 통증여부와 통증정도의 조절, 우울이나 불안, 두려움과 같은 정신사정과 함께 필요한 경우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매일 아침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며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설렘을 주기도 하는 천주의 성요한 병원을 탐방하면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다른 호스피스 기관과는 달리 천주의 성요한 병원 의료서비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호스피스 데이센터라는 낮에만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였다. 이는 가정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환자들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시간만큼 낮에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다양하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투병생활 가운데서도 개인의 존엄성과 독립심을 보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도 환자의 가족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낮 시간 동안 환자를 돌보아준다는 점에서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느껴졌다. 이 외에도 긴 시간동안의 치료로 인해 지쳐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입원의료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개개인의 욕구에 맞추어 환자중심의 맞춤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천주의 성요한 병원의 각각의 시설을 돌아보며 이 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병원장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호스피스 방향도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제도적, 법적인 발전을 이루어 더욱 활성화된 모습으로 지금도 고통중에 있는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해 본다.